

IMF시대 기업 "군살빼야 산다"

기업마다 감원·감봉등 '고육책' 중소기업 잇단 한시적 휴업 '한파 실감'

IMF(국제통화기금)는 차관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대부분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다. IMF 요구사항의 골자는 신뢰할 수 있고 명확한 퇴직정책이다. 경쟁력 없는 경제주체는 도태된다는 법칙을 관철시키라는 것이다.

○에 따라 각종 제도로 보장되던 국내 기업의 보호조치들이 대부분 해제된다. 무역관련 보조금의 폐지, 수입승인제 폐지,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계열사 간 상호채무보증 관행도 예전같지 않게 되었다.

IMF의 요구를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력하고 개방적인 선진경제로 다시 태어나는다는 선택이므로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현재의 위기는 과거에 겪지 못한 심각한 상황"이라는 한 그룹총수의 진단은 얼

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30대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은 고강도 감봉경쟁을 추진하고 있다. 쌍용은 임원 30% 감원, 임원 급여 30% 삭감을 결정했다. 직원급여도 15% 삭감하고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과 임원의 승진을 전면凍결키로 했다. 한화 LG 동아 삼성 대우 현대 코오롱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살아남기 위해 몸집줄이기에 몰려있다.

부동산 처분, 한계사업 정리에도 나섰다. 쌍용은 용평리조트와 서울 삼각동 부지사, 은화삼골프장 등의 부동산을 처분키로 했다. 한화는 한화바스프우레탄을 합작사인 독일의 다국적기업에 9일 매각했다. 대기업간의 자발적인 M&A(인수-합병)도 나타나고 있다. 쌍용자동차를

대우그룹이 사들였다. 두 그룹과 금융권이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공멸'을 탈출한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은 아예 한시적 휴업으로 IMF한파를 견뎌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5천만원 어치의 부도 어음을 안고 있는 한 섬유회사는 내년 3월까지 10명 남짓한 종업원에 게 월급은 지급하면서 회사를 유지해 3월 이후에나 조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대신일정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자칫 자금회수에 차질이 생길 경우 부도를 맞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선택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IMF에서 돈을 꾸어온 데는 기업들의 책임이 크다. 은행빚이 많으면 많

을수록, 덩치가 크면 클수록 무너지지 않는다는 관행에 의존해 무리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해온 것이 사실이다. 경영을 이치에 맞게 순리대로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기업의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그동안의 관행이 기업과 정치권 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소위 '정경유착'이라는 이름으로 해왔 다. 그렇다고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정치권이 먼저, 정부가 먼저 라는 식으로는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누구 할 것 없이 먼저 나서야 한다.

정성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올바른 선택 밝은 내일'이라는 공명선거 표어를 적은 비행선을 띄웠다. 비행선은 선거 당일까지 한강을 따라 잠실에서 여의도 사이를 왕복한다.

음교의 눈

"자기를 낮춰 이겨내자"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무궁무진한 경영의 지침들이 들어 있다.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것이니 이에서 부처님께서는 저 장에 가운데서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바로 저 거슬리는 것이 나를 순종하게 함이며, 방해하는 것이 나를 성취하게 함이 아니겠는가?"(보림삼매론)

"범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냉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같이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잡보장경)

초발심으로

노련하면 과녁 맞출 수 있다

■ 첫 발심할 때 정각을 얻는다. 이 때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알고 지혜의 몸을 갖춰 스스로 깨달음의 눈을 뜨기 때문이다. (화엄경)

■ 보리심을 처음 일으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대집비유왕경)

■ 보살들은 발심하여 열심히 노력하기에 빨리 열반을 얻는다. (기신론)

■ 활을 쏘아 과녁을 잘 맞히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한 것이니 누구라도 잊지 않고 노력하면 과녁을 잘 맞출 수 있다. 도를 빨리 얻지 못한다고 한탄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도를 얻을 수 있느니라. (불반니화경)

■ 모든 중생을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각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한 가지이나 맡출려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얻으리라. 사업을 이룸에는 참아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뜻을 이루고자 하면 먼저 인욕함을 배워야 한다. (별역집어함경)

■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시 때, 파사익왕에게 말씀하셨다. "먼저는 과제로부터 행하는 것이 낫고, 아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괴로운 일이 나 뒤에는 즐겁고, 쓴 악을

먹는 것도 처음에는 괴로우나 뒤에는 즐거우며, 가업을 잇는 것과 혼인하는 것은 처음에는 괴로우나 뒤에는 역시 즐거운 일이다." (중일아함경)

■ 높은 관직을 탐내는 사람은 고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것을 위한 행위를 하게 마련이다. 무릇 욕구의 선악을 막론하고, 그 마음에 먼저 목표를 세운 다음에야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보리를 구하는 사람도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행을 구하는 것이다. (발보리심론)

■ 만약 사람들이 큰 광명이 되어 온 암흑을 없애고자 원한다면, 모름지기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 (출생보리심경)

■ 초발심을 발한 보살이 보리심을 내면, 무한한 과거로부터 활동해 온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다. 또한 이 보살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며 행하고 체득하여 모든 부처님들의 공덕과 같게 된다. (화엄경)

한국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서 제외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됐다. 10일 폐막된 교토 기후변화협약 총회는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우도록 하되 선진국과 같은 구속력있는 의무는 지우지 않기로 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38개 선진국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를 줄이기로 했다.

또 감축대상 온실가스는 회의 기간중 수소불화탄소 불화탄소

불화유황 등을 포함하지는 논의가 있었으나 중전대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3가지로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감축대상 온실가스의 확대는 내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제4차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결정이 의무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4자회담 '無성곡'

역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이 9~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으나 서로의 의견차이만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뒀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남긴 채 끝났다는 평가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은 이번 본회담의 최대쟁점이었던 분과위 구성문제에 대한 타결을 시도했으나 한미 양국과 북한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등 2개 분과위 구성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며 주한미군 철수 및 북-미 평화협정 체결 문제 논의를 보장할 수 있는 분과위 구성을 제안했다. 다음 본회담은 내년 3월 1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기초과학 연구비 2억 전달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나라가 산다." 롯데장학재단(이사장 노신영)은 8일 서울대 신동우교수(수학) 등 과학자 7명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제1회 롯데 펠로우십 행사를 가졌다. 재단은 기초과학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2년간 4억원의 연구비를 조건없이 지원키로 하고 이날 2억원을 전달했다.

7년째 교통정리 할아버지
경기사흥시 은행동에 사는 박홍식(86)씨를 주변사람들은 '교통정리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91년부터 지금까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은행동 네거리에서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박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운전대를 너무 급하게 한다"며 양보운

전을 당부했다.

재산 대학에 기증 잇따라
70대 노부부가 평생 모은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충북대에 기증했다. 괴산에 사는 최공섭(76) 전정숙(72)씨 노부부는 9일 충북대 이남호 총장에게 학교발전기금으로 1백여명의 토지와 2층 건물을 기탁했다. 또 8일에는 윤혜성씨(65)가 모교인 평택대에 50억원 상당의 임야를 기증, 후학들의 학업열을 북돋아 훈훈한 화제.

증권가 '부도설' 유언비어
PC통신 게시판에 모대기업의 부도설을 게재한 대학원생 하모씨가 서울지검에 8일 신원체손혐의로 구속됐다. 10일에도 금융사 과장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검찰은 이같은 유언비어가 우리 경제의 해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종합병원 158억 특진사기
서울시내 13개 종합병원 원장이 진료비 2중징수, 특진비 허위징수, 보형금 총징수에 학교발전기금으로 1백여명의 토지와 2층 건물을 기탁했다. 또 8일에는 윤혜성씨(65)가 모교인 평택대에 50억원 상당의 임야를 기증, 후학들의 학업열을 북돋아 훈훈한 화제.

생각정보
입회비 1만5천원, 월회비 2만원. 배달도 해준다.

수입옷 우리옷과 교환
"질감이 우리옷"은 31일까지 '로열티 무는 수입옷 우리옷'으로 바꿔주기 행사를 한다. 모여진 수입옷은 북한 옷보내기 운동에 쓰여진다. (02)741-5606.

을 행진 사실이 밝혀졌다.

검사가 거액 포커도박
형직검사가 2천만원의 관돈을 걸고 포커도박을 벌이다 7일 제주지검에 적발됐다. 법무부 송무과 이종대 검사는 제주도 휴가 여행 중 친하게 지내던 한의사 사업가 등과 포커도박을 벌였다. 이검사는 사건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신상품

젓나무 베개 신침

만성피로, 두통, 불면증, 코골이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젓나무베개 신침'이 선보였다. 이 제품은 베개 안에 32가지 한약재를 넣고 작은 구멍을 뚫어놓아 잠든 동안 독특한 향이 배어 나온다.

연세대 재활병원장 전세일교수는 "이 제품은 목근육의 긴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베개높이 6~8cm 조건을 만족시켰다"며



"경관완충층(목, 어깨, 팔 등)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유산기업, 가격은 30만원. (02)277-8727

불로화정 (不老化精)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의 규모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러 회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돌보는 불자들을 돌보는 데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 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가서 노화억제 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